



성령의 조명

나를 깨닫게 하사

1 기도

2 찬송 주 우리 아버지(140쪽)

3 말씀 읽기 시편 119:123-128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4 말씀 이해하기

시편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는 피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나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고전2:4).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말씀을 깨닫는 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 예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만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롬1:21-23).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거리가 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고전1:23). 자신의 타락과 죄를 보면서도 스스로를 자랑합니다(고전4:7). 사람의 부패한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하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말씀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도를 책망하여 회개하게도 하고, 격려하여 고난을 감당하게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그분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먼저 기도로 이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시편 기자가 주님께 피곤하기까지 사모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123절)

2. 시편 기자가 주님의 계명을 세상의 가장 값진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127절)

3.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깨닫는 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령의 □□'이라고 합니다.

5.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기 전, 혹은 들은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